



전일 주요 경제지표 및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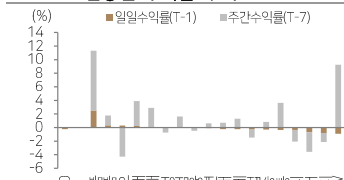
[전일 해외시장 요약]

- **미국증시:** Dow (-0.45%), S&P500 (-0.25%), Nasdaq (-0.30%)
 - 미국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추가 90일 유예 행정명령 서명에도 CPI 경계심리에 하락 마감
 - 외신,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
 - 트럼프, 푸틴을 만난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정상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발언
 - 트럼프,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테슬라, 미 교통부 장관이 전국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지침을 발표하자 +2.9% 상승
 - 아이온큐, 아마존의 매수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7.4% 상승
 - 애플, 인도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확대되자 -0.8% 하락
 - S&P500, 필수소비재 +0.2%, 재량소비재 +0.1% vs 에너지 -0.8%, 부동산 -0.6%
 - 변동성지수(VIX), 전일 대비 +7.26% 상승한 16.25 기록
- **미국국채:** 2yr 3.768%(+0.6bp), 10yr 4.285%(+0.2bp)
 - 미국 국채금리, 보우만 연준 부의장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하락 출발 후 낙폭이 축소되며 보합 마감
 - Germany 10yr 2.7%(+0.7bp), Italy 10yr 3.48%(+0.2bp)
- **FX:** JPY 148.11(-0.03%), EUR 1.162(0.0%), Dollar 98.51(+0.3%)
 - 달러 인덱스, CPI 발표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
- **Commodity:** WTI \$63.96(+0.1%), Brent \$66.71(+0.2%)
 - WTI, 마-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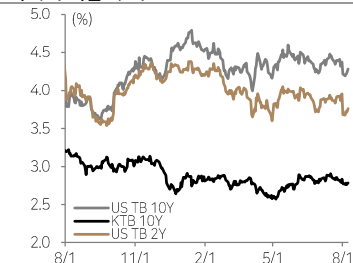
[금일 주요 스케줄]

- 미국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예상: 98.9, 이전: 98.6)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예상: 2.8%(y/y), 이전: 2.7%(y/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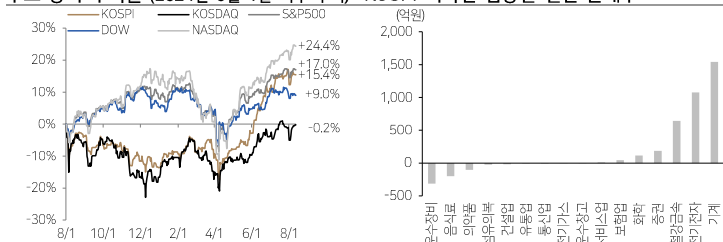
S&P500 업종별 수익률 추이



국채 수익률 추이



주요 증시 수익률 (2024년 8월 1일 이후 누적) KOSPI 외국인 업종별 일간 순매수



Liquidity (잔액, 증감, 억원)

구분	잔액	1D	1W	1M	3M	1Y	YTD
고객예탁금*	67,473	597	-3,824	2,277	13,211	13,595	13,230
미수금*	906	2	-15	-18	-6	-80	33
신용잔고*	21,614	209	2	907	4,218	4,527	5,906
MMF*	230,251	-2,007	5,410	5,269	2,453	29,076	63,291
채권형*	219,224	662	1,687	6,786	20,985	50,447	50,077
주식형(국내)*	89,575	210	9	-365	-441	-34	-314
주식형(해외)*	84,699	-1,410	-1,420	-252	-409	-1,364	-142
외국인	275	716	5,052	9,664	-27,797	-7,594	
개인	-240	-869	-4,797	-8,464	4,081	-3,092	
기관	-174	-334	-2,110	-2,093	13,153	3,098	
투신	-48	-174	-811	-1,648	-2,927	-1,995	
연기금	-79	-68	-747	-1,137	10,748	5,254	
금융투자	39	379	1,275	5,078	14,670	7,580	
보험	-37	-30	-144	-1,215	-1,782	-1,776	
프로그램 차익	-4	-5	76	595	65,128	-1,265	
프로그램 비차익	-271	9	1,235	-4	-20,769	-10,365	

*는 D-1 일 기준, 펀드는 설정액 및 ETF 제외 기준, 주식형 잔액은 종자산기준, 매매추이는 KOSPI 기준

Global Index	Index	1D(%)	1W(%)	1M(%)	3M(%)	1Y(%)	YTD(%)
KOSPI	3,206.77	(0.1)	1.9	0.1	22.3	16.0	33.6
KOSDAQ	811.85	0.3	3.5	1.6	10.7	0.5	19.7
DOW	43,975.09	(0.5)	(0.4)	(1.1)	4.6	11.3	3.4
S&P500	6,373.45	(0.3)	0.7	1.7	8.2	19.3	8.4
NASDAQ	21,385.40	(0.3)	1.6	3.6	11.7	27.7	10.7
영국_FTSE100	9,129.71	0.4	0.0	1.5	5.1	10.2	11.7
독일_DAX	24,081.34	(0.3)	1.4	(0.3)	0.6	34.6	21.0
프랑스_CAC40	7,698.52	(0.6)	0.9	(1.4)	(2.3)	3.3	4.3
일본_NIKKEI225	41,820.48	1.9	2.5	5.5	10.8	7.0	3.8
대만_TWSE	24,135.50	0.5	3.2	6.7	10.5	8.7	4.8
홍콩_HS	24,906.81	0.2	0.7	2.9	6.7	47.0	24.2
중국_Shanghai	3,647.55	0.3	1.8	3.6	8.3	26.7	8.8
인도_SENSEX30	80,604.08	0.9	(0.5)	(2.0)	(1.8)	1.1	3.2
베트남_VN	1,596.86	0.8	4.5	8.6	23.2	32.2	26.1
브라질_BOVESPA	135,623.16	(0.2)	2.0	0.2	(2.6)	5.4	12.8

KOSPI Sector Index	Index	1D(%)	1W(%)	1M(%)	3M(%)	1Y(%)	YTD(%)
에너지	4,045.03	(1.2)	2.5	(8.1)	18.7	13.6	24.0
화학	3,972.23	1.2	2.4	0.7	22.5	(17.8)	14.9
철강	2,207.30	3.1	4.3	(4.7)	20.2	(8.9)	23.4
건설_건축관련	1,545.82	(1.4)	3.9	(0.9)	22.1	19.4	50.4
기계	7,643.09	1.8	5.8	10.6	66.3	128.2	131.8
조선	7,811.27	(2.7)	0.7	19.3	26.4	102.1	78.2
운송	1,807.78	(1.8)	3.1	(4.6)	6.0	24.7	23.6
자동차	9,249.36	(0.3)	1.7	(0.4)	9.5	(3.3)	6.3
화학품,의류,완구	5,327.29	(2.7)	3.9	(0.8)	16.2	29.2	44.8
호텔,레저서비스	2,339.45	(1.1)	7.3	(3.0)	26.4	37.2	40.2
소매(유통)	1,913.56	(1.8)	3.1	(6.4)	8.1	13.7	26.6
필수소비재	7,171.21	(1.8)	4.4	(1.2)	15.4	30.7	28.2
건강관리	8,625.52	(0.2)	0.9	(2.9)	8.8	0.2	(1.3)
은행	2,456.84	(0.6)	4.5	(5.8)	27.0	31.2	42.3
증권	1,969.03	(1.6)	1.6	(13.1)	21.1	61.3	49.3
보험	9,014.78	(0.0)	3.6	(7.7)	27.5	(1.3)	25.3
소프트웨어	7,136.55	(1.0)	4.0	(7.3)	21.6	26.0	22.9
IT하드웨어	915.87	0.8	7.1	11.7	22.5	(4.1)	28.1
반도체	10,842.49	0.5	3.2	5.0	25.2	99.2	38.7
IT가전	1,697.38	2.6	9.5	16.8	21.2	(17.7)	0.1
디스플레이	681.51	0.9	4.2	12.4	18.8	(6.7)	17.3
통신서비스	379.04	0.4	0.8	(3.3)	7.8	25.1	16.9
유틸리티	1,219.65	(0.9)	7.3	1.4	40.7	62.4	68.6

S&P500 Sector Index	Index	1D(%)	1W(%)	1M(%)	3M(%)	1Y(%)	YTD(%)
반도체	7,483.21	(0.3)	1.3	7.8	28.2	56.7	30.2
Tech H/W	4,385.98	(0.9)	9.2	8.7	9.8	11.9	(3.2)
소프트웨어	5,603.77	(0.7)	(2.9)	0.7	8.4	25.3	14.9
은행	531.41	(0.0)	(0.7)	(1.7)	7.2	32.7	12.8
보험	807.38	(0.0)	1.6	(1.2)	(3.9)	6.3	1.2
기타금융	1,470.08	(0.0)	(0.4)	(1.5)	0.9	22.6	6.2
자동차&부품	181.89	2.5	8.8	5.9	(1.8)	60.3	(13.7)
유통	5,271.89	(0.3)	3.6	0.8	5.5	25.7	2.5
식품/필수품소매	1,044.65	0.2	3.7	4.1	5.4	25.5	10.8
음식료/담배	872.12	0.1	2.8	1.3	4.4	2.5	9.4
가정용품	821.42	0.3	1.5	(0.3)	(1.6)	(9.1)	(6.4)
자본재산업	1,464.29	(0.3)	(1.2)	0.1	10.4	27.8	18.5
소재	560.87	(0.2)	0.7	(2.0)	4.6	0.5	5.9
에너지	643.53	(0.8)	(1.3)	(4.7)	(1.2)	(6.2)	(1.7)
운송	1,006.05	(0.3)	0.8	(4.3)	2.5	3.4	2.3
제약/바이오	1,232.25	0.3	(4.3)	(3.7)	5.5	(15.2)	(5.1)
커뮤니케이션	392.52	(0.1)	0.6	4.9	13.2	32.4	14.9
유틸리티	435.54	(0.4)	(1.7)	3.6	8.3	16.6	13.1

Commodity	Inx/Price	1D(%)	1W(%)	1M(%)	3M(%)	1Y(%)	YTD(%)
Reuters CRB	295.69	0.6	0.7	(2.5)	(0.9)	5.8	(0.3)
BDI	2,038.00	(0.6)	3.5	14.3	46.8	22.0	104.4
WTI(Cushing, \$/Barrel)	63.96	0.1	(3.5)	(4.5)	1.3	(20.1)	(10.8)
Brent(Sullom Voe, \$/Barrel)	66.71	0.2	(3.0)	(3.6)	1.8	(12.3)	(10.6)
Dubai (Fateh, \$/Barrel)	67.66	0.3	(2.9)	(5.2)	6.8	(12.1)	(9.9)
탄소배출권(e/MT)	71.98	(1.1)	2.2	2.8	3.4	(0.6)	0.6
금(\$/oz)	3,353.10	(2.5)	(0.6)	(0.2)	5.2	36.2	27.0
은(\$/oz)	37.79	(2.0)	1.2	(1.8)	17.3	34.9	29.2
구리(\$/ton)	9,692.45	0.8	1.2	0.6	0.8	9.6	12.0
알루미늄(\$/ton)	2,606.72	(0.1)	1.7	0.2	4.7	14.4	3.2
천연가스(\$/MMBtu)	2.95	(1.2)	0.8	(14.8)	(15.4)	34.9	(18.7)

FX Market	Price	1D(%)	1W(%)	1M(%)	3M(%)	1Y(%)	YTD(%)
원/달러	1,391.5	0.2	0.5	0.6	0.1	4.8	(5.9)
원/100엔	913.2	0.2	0.4	(2.0)	1.6	3.0	2.4
달러/인덱스	98.51	0.3	(0.3)	0.4	(1.9)	(3.0)	(9.2)
달러/유로	1.1615	0.0	0.3	0.1	2.9	3.9	13.2
엔/달러	148.11	(0.0)	0.3	(0.5)	2.5	2.9	(6.0)
위안/달러	7.19	0.1	0.1	0.2	(0.3)	(0.7)	(1.3)

Bond & Credit (증감)	Price	1D(bp)	1W(bp)	1M(bp)	3M(bp)	1Y(bp)	YTD(bp)
국고채_3년(%)	2.422	1.5	0.2	(5.3)	7.2	(57.3)	(17.5)
국고채_10년(%)	2.785	1.3	1.0	(10.2)	7.5	(27.0)	(8.5)
미국채_2y(%)	3.768	0.6	9.3	(13.1)	(23.1)	(14.7)	(47.3)
미국채_10y(%)	4.285	0.2	9.3	(14.8)	(19.2)	48.6	(28.4)
미국 기업채플레이스_10y(%)	2.400	0.4	4.2	(0.4)	4.1	27.7	6.1
독일국채_10y(%)	2.695	0.7	7.2	(3.3)	10.8	50.6	33.1
북미 투자등급채(bp)	120.802	(0.8)	(3.4)	(5.9)	(14.5)	(20.7)	0.9
북미 투기등급채(bp)	314.088	(0.1)	(11.0)	2.8	(18.2)	(49.2)	12.7

Crypto Currency	Price	1D(%)	1W(%)	1M(%)	3M(%)	1Y(%)	YTD(%)
Bitcoin(\$)	118,614.67	(0.2)	1.2	0.6	12.5	19.8	26.6

*데이터 일자는 거래일 기준



IT		
IT	"엔비디아·AMD, 中 수출 AI칩 수익 15% 美 정부에 내기로" FT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 합의...전례 없는 일"	https://buly.kr/2fe84a7
	트럼프 압박에 휘청이는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3강 도전 '기로' 트럼프 압박에 불확실성 커진 인텔. 적자와 투자 불확실성 '이중고' 겪는 중... 삼성-TSMC 2강 체제 속 구도 재편 주목	https://buly.kr/BTQ17PR
산업재		
조선/기계/ 방산	베트남 K-9자주포 도입 확정... 공산국가 첫 수출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간(G2G) 거래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납품	https://buly.kr/EdtenNO
건설/부동산	인명사고 여파' 포스코이앤씨 이어 DL건설·DL이앤씨 공사 중단 DL건설, 44곳 공사 중단...DL이앤씨도 80여 개 현장 공사 중단 후 안전점검 실시	https://buly.kr/4bt67C
철강	강관 업계, 美 50% 관세 부과에 중동 등 신시장 공략 가속 유가 박스권·리그수 주춤...韓 강관 업계, 이중 약제 불가피, 美 50% 고율 관세·수요 급감, 강관 업계 하반기 '생존 모드'	https://buly.kr/Awfk2r5
소비재		
자동차/ 모빌리티	현대차·기아, 계열 SW센터 '포티투닷'에 5003억원 추가 출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IRA 종료전 美전기차 사재기에...현대차 "하반기 보릿고개 올라" 미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달 말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구매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	https://buly.kr/H6iGbrR https://buly.kr/EzjAq8T
화장품	관세 폭탄 맞은 K뷰티·푸드美 수출 급랭 8월 10일간 K뷰티 수출액 3,692만달러(YoY-37.2%), 기초 1,246만달러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 색조도 YoY-49%	https://buly.kr/5q7lsx9
의료기기	中 무비자 관광객 확대에... 파마리서치, 3분기 실적도 '훈풍' 하반기 中 무비자 관광객 증가로 인바운드 의료관광 성장 전망, 유럽 수출·신사업 확장 기대도	https://buly.kr/58SjhMn
제약/ 바이오	미국 '생물보안법' 재시동... 中 바이오사업 제동 걸리나 미 상원의원, 2026년 국방 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 빠르면 9월 상원에서 심의 예상 마운자로' 출시에...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공급가 최대 42% 인하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위고비 공급가 인하, 저용량 기준 20만원대까지 인하 가능성	https://buly.kr/2UjNFNE https://buly.kr/DEZb59D
음식료	삼양 불닭소스, 美 판다 익스프레스와 협업 '다이너마이트 스위트 앤 사워 치킨' 한정 판매...북미 매운맛 시장 공략	https://buly.kr/DPULuOn
서비스		
인터넷/게임/ 레저	시프트업, 2분기 영업이익 682억원... 전년 比 51.6% ↑ '분기 최대' 올해 2분기 매출 1124억원, 영업이익 682억원을 기록.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4%, 51.6% 증가한 수치.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 "중국 단체 무비자 훈풍...외국인 카지노, 하반기 '잭팟' 노린다 오는 9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반색	https://buly.kr/8pgeQTR https://buly.kr/DIJrtKR
운송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만든다며...지금도 좁은 이코노미 1인치 더 줄인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일부 기종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코노미석 배열을 3-3-3 시스템에서 3-4-3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밝혀 논란	https://buly.kr/90bPcao
금융	하나은행, USDC 발행사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협력 하나은행, 서클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세부적 방향성은 논의 중 돈 빌리고 갚지도 못하는 기업들...6년반 만에 최고치 5월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금 연체율 0.9% 기록. '18년 11월 이후 6년 6개월만에 최고치	https://buly.kr/APvTKmv https://buly.kr/7x6rjX7